

# “의사보다 대기업 안정적 취업”... ‘반도체계약학과’ 인기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공개 기준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98점 ‘최고’ 지방권 의대 평균보다 0.8점 웃돌아

〈2026 자연계 최상위권 정시 입시결과〉

No	구분	국수탐백분위 70%컷
1	경인권 의대	99.0
2	서울권 의대	98.8
3	지방권 의대	97.2
4	삼성·SK하이닉스 반도체계약	96.2
5	서울대 자연	95.8

/종로학원

0점 낮지만, 의약학계열을 제외한 서울대 자연계 일반학과 평균 95.8점보다는 0.4점 높은 수준이다.

대학별로는 한양대 반도체공학과가 98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방권 의대 평균 97.2점을 0.8점 웃도는 점수다. 이어 고려대 반도체공학과가 97점으로 지방권의 대 평균에 근접한 수준을 보였다. 이어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96점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95점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95점 순이었다.

의대 합격선은 여전히 반도체계약학과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합격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가천대를 제외한 전국 38개 의대의 평균 합격선은 경인권 의대 99.0점, 서울권 의대 98.8점, 지방권 의대 97.2점으로 집계됐다. 반도체계약학과 평균은 96.2점으로 의대보다는 낮았지만, 서울대 자연계 일반학과 평균 95.8점보다는 높았다.

이번 분석은 정시 합격점수를 공개한 5개 대학을 대상으로 했다.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한국과학기술원과 포항공과대는 수시에서만 선발하고, 울산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정시 합격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업 연계별로는 SK하이닉스 계약학과와 합격선이 삼성전자 계약학과보다 높았다. 고려대·한양대·서강대 등 SK하이닉스 연계 3개 학과의 평균은 96.7점으로 집계

됐다. 연세대·성균관대 등 삼성전자 연계 2개 학과 평균은 95.5점이었. 두 기업 연계 학과 간 평균 점수 차이는 1.2점이다.

모집군 배치도 수험생의 지원 전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는 기군에 속해 상호 중복지원이 불가능했고, 서강대와 한양대는 나군으로 묶여 서로 중복지원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반도체계약학과 간 선호도뿐 아니라 모집군별 선택 구조도 최종 등록 결과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종로학원은 분석했다.

2027학년도에는 합격선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대 모집 구조에 변화가 예상되는 데다, 반도체 산업 인력 수요와 취업 연계 학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의대와 반도체계약학과, 서울대 자연계에 동시에 합격한 수험생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향후 최상위권

자연계 입시 판도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직전년도인 2025학년도에는 각 대학이 국수탐 평균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같은 기준의 추세 비교는 어렵다. 2024학년도 역시 의대의 발표 기준이 백분위, 자체 환산점수, 등급 등으로 달라 직접 비교가 제한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합격선이 지방권 의대 평균을 웃도는 등 일부 반도체계약학과가 의대 합격선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선 점은 최상위권 자연계 입시 구도 변화를 보여준다”며 “2027학년도에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반도체계약학과 선호 확대가 맞물리면서 의대, 반도체계약학과, 서울대 자연계 사이에서 수험생들의 최종 선택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 상명대, 베트남 韓 문화교육·유학 활성화

베트남 사이공한글학교와 ‘맞선’ 재외동포·한배가정 자녀 대상 교육 대학 교육 기반·인프라 연계 지원



(왼쪽부터) 김규 사이공한글학교 교장, 김종희 상명대 총장. /상명대

상명대학교(총장 김종희)는 19일 서울 캠퍼스에서 베트남 사이공한글학교와 한국 문화 교육 및 한국 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이공한글학교는 베트남 호찌민시에 있는 한글학교로, 재외동포와 한배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 문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베트남 학생 대상 한국어 학습 지원, 한국 유학 정보 제공 및 진

학 상담, 유학생 유치와 유학 지원을 위한 공동 활동 등을 추진한다.

상명대는 사이공한글학교의 한국어·한

국 문화 교육 기반과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연계해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과 한국 유학 준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종희 상명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베트남 학생들에게 상명대의 교육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규 사이공한글학교 교장은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상명대와의 협력은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진학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명대는 지난 3월 사이공한글학교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현진 기자

## 양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상황 점검

법무부·농식품부 장관과 현장 간담회 연말까지 최종 900여명 입국 예정

양주시는 19일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숙소와 농작업 현장을 함께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의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정부의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운영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154개 농가에 75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경기도 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운영 중이다. 현재 653명이 입국해 현장에 투입됐으며, 연말까지 최종 900여 명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 대비 약 3.9배 증가한 규모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경기북부 최초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동 출입국외국인등록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국 당일 통장 개설 윈스톱 서비스, 찾아가는 건강검진과 마약검사, 임금체불 방지 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 백석농협과 협력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라오스 근로자 20명을 직접 고용해 현재까지 50여 농가에 약 500회 이상 농작업 인력을 지원하며 소규모·고령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장관들은 외국인등록 출장서비스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근로자 인권보호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 인력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 서울한양CC, 신축 클럽하우스와 새출발

350억 투입해 미래 100년 기반 마련



20일 서울한양CC, 조갑주 이사장이 클럽하우스 준공식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컨트리클럽이자 한국 골프의 상징으로 꼽히는 서울한양컨트리클럽이 신축 클럽하우스 준공과 함께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사단법인 서울한양컨트리클럽(이사장 조갑주)이 20일 신축 클럽하우스 준공식을 개최하고 미래 100년을 향한 비전을 선포했다. 행사에 회원과 골프계 관계자와 지역 정관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축하했다.

1927년 문을 연 서울한양컨트리클럽은 대한민국 골프 역사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국내 최초의 정규 코스 컨트리클럽이다. 이번 클럽하우스 재건축은 오랜 기간 회원들이 염원해 온 사업으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됐다.

새롭게 문을 연 클럽하우스는 총사업비 350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 연면적은 9253.04㎡(약 2799평)에 이르며,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다.

특히 클럽하우스는 세계문화유산인 서삼릉과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에 자리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회원들에게는 보다 쾌적한 휴식 공간과 수준 높은 라운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갑주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준공식은 단순한 건축물 완공을 넘어 서울한양컨트리클럽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출발점”이라며 “회원들의 오랜 성원과 관심 속에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용식 대표이사는 환영사에서 “신축 클럽하우스는 회원 중심의 공간 구성과 미래지향적 서비스 환경 구축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다”며 “공사 기간 동안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삼아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한양컨트리클럽의 전통과 정체성을 담아내면서도 현대적인 시설과 편의성을 갖춘 공간으로 탄생했다”며 “회원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 골프클럽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해돋이 / 05:11 | 해질녘 / 19:57

### 오늘의 날씨

6월

22

일(月)

음력 : 5월 8일

**수도권 날씨**

21~29℃

-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연천 18/29

동두천 19/28

백령도 18/28

파주 18/28

가평 17/27

서울 21/29

양평 19/28

인천 20/28

수원 20/28

용인 20/28

평택 19/2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주유소 2시간 반 줄었다...우크라 드론에 러 53개 지역 휘발유 제한 /사진 뉴스

▲쿠바 외무 “루비오 미 국무장관, 쿠바 석유제재 없다고 거짓말” 비난

▲“스타머 英 총리 22일 사임 표명”...정부 “직무에 전념” 반박

▲日, 중국·대만산 스테인리스강에 예비 덤핑 판정

▲美,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 발사 체계전개...“대중 억지력 강화”

▲이라크 서부 국회의원 저택에 무인기 공격...사상자·피해보고는 없어